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찾아가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K-Culture Festival 2026' 개최

- 6월 27일(토), 시모노세키 'Dream ship'에서 난타, K-드라마 OST 오케스트라 등 공연과 함께 K-뷰티 체험 및 한국관광 홍보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와 공동으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출장형 한국문화 페스티벌 「K-Culture Festival 2026 in 시모노세키」**를 2026년 6월 27일(토) 시모노세키 생애학습플라자 Dream Ship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은 일본 내 지방 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평소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류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한일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 각 지역에서 한국문화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기획되었다.

문화원은 지난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국 10개소 이상의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올해 개최지로 선정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는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로 문화원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시모노세키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현대 공연, 문화 체험, 관광 홍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 공연'은 스테디셀러 난버벌 퍼포먼스 '난타'를 비롯하여, 'K-드라마 OST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현지 시모노세키시립대학교 댄스 서클의 'K-POP 댄스' 무대도 마련되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최근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체험을 비롯하여, 한국의 맛을 직접 느껴보는 '한국요리' 프로그램,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굿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뽕즈(국립박물관상품 DIY)'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한국관광홍보 전시도 마련하여 한국관광 100선과 함께 최근 한일 양국 정상에 방문하여 화제가 된 세계유산 도시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인 부산, 천년고도 경주 등 한국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영혜 문화원장은 "올해 K-Culture Festival을 한국과 인연이 깊은 시모노세키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의 양국 미래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K-Culture Festival 2026'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홍보담당자	팀장	조은경 (+81-3-3357-5970)
		행사담당자	팀장	채경신 (+81-3-3357-5970)

□ 행사개요

- (행 사 명) K-Culture Festival 2026
- (일 시) '26. 6. 27.(토) 12:00~17:00
- (장 소) 시모노세키 생애학습플라자 Dream ship(아미구치현)
-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시모노세키시
- (협 력) 주히로시마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시모노세키시립대학 등
- (주요내용)
 - 무대공연 : K-POP 댄스, K-드라마 OST 미니오케스트라, 난타
 - 체험형 프로그램 : K-뷰티, 한국요리, 뒹즈 DIY
 - 한국관광홍보 전시 : 한국관광 100선, 안동, 부산, 경주 등 소개

□ 전시 홍보물



행사 포스터



행사 전단지